

# 꾸미고 꾸미는 학교 화장실

## 서울시, 연말까지 265개 학교 화장실 공사 변신 완료

서울시시가 교육청과 협업체 조·중·고등학교 화장실을 실제 사용자인 학생 눈높이에 맞는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꾸미고 꾸미는 학교 화장실, 함께 꿈' 사업을 통해 10월 말 현재 186개 학교가 공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79개 학교는 겨울방학까지 마무리해 연말까지 총 265개 학교 화장실이 변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형 첫 번째 학교인 175개 학교 화장실을 개선한 바 있다.

올해는 ▲양변기 설치 확대 ▲여성 화장실 비움 확대 ▲구강건강을 위한 양치 공간 조성 ▲배리어프리 설계 등을 통해 화장실 기능을 개선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하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변기 설치율이 30% 미만인 149개 초등학교는 80% 이상으로 양변기를 확대 설치해 아이들이 용변을 보러 갈 때 가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고 여성용 변기 수를 늘려 남녀 화장실 비율을 기존 1.3:1에서 1:1로 조정했다.

구강건강 및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양치제를 놓여 나

기 위해 101개 학교에 양치공간을 새로 조성했으며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해 구강검진, 양치교실 같은 구강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배리어프리로 공간을 설계했다.

특히 미포초, 신북초 등 59개 학교에서는 실사용자인 학생, 교사와 학부모, 디자인디자이너 등 20~30명이 참여하는 '화장실 디자인 TF팀'을 구성해 기획 단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동 참여했다.

TF팀은 총 5주 동안 현장조사·사례조사·공간구상·디자인 결정·도면확정의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각 학교마다 실제 사용자인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공간과 디자인을 구성하는 등 주제적으로 참여해 연령별·성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이 이뤄지고 '기능 중심의 시설개선에서 '감성'까지 채울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의 스토리가 담긴 공간으로 변신했다.

구로구 구로초등학교는 어둠과 칙칙하던 화장실에 구름, 별, 해 모양 조명이 설치되어 밝고 화사해졌고 아

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칸막이, 거울, 벽, 세면 공간 등에 그대로 반영됐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적용해 학생들이 오클러스 VR 기기를 착용하고 향후 지어질 화장실 내부를 직접 체험한 후 설계 오류를 검증했다.

또한, 개수대 높이를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낮추고 소변기 이용 폭을 넓게 조정하는 한편 양치대 설치 시 수도꼭지 개수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복도 통행 폭 등 이동상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

관남구 일발학교는 장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샤워실, 탈의실, 대기공간이 마련됐으며 벽걸이 수족관이 설치된 양치대 위에는 장애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타일에 반영됐다.

은평구 신관자동화초등학교는 자동차 전문학교의 특성을 살려 공공공간 벽에 자동차 모양의 3D 그래픽이 디자인됐으며 화장실 타일, 문 등에는 카레이싱 깃발, 타이어, 계기판 등을 디자인했다.

사업에 참여한 정재현 디자인디자이너는 "학교 화장실은 10년 전이나 지

금이나 모두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꾸미고 꾸미는 학교화장실' 사업을 통해 학교 고유의 스토리가 담긴 화장실로 바뀌고 있으며 디자인 TF회의를 통해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을 실현하는 감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학교 화장실의 변신 전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꾸미고 꾸미는 학교화장실, 함께 꿈' 사진전시회 및 캠페인을 7~8일 서울광장 서편에서 개최, 이번 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눴다.

전시회에는 2015년~2016년 개선된 학교 우수학교의 화장실 사진이 전시되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됐다.

김복록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아이들의 인성과 꿈을 키워주는 소중한 학교 공간이 바뀌면 우리 아이들의 생기도 바뀐다"고 전했다.

이와 "미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학부모 여러분은 물론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학생안전'

## '서울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의원이(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오는 9일 서울회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새롭게 학생안전에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한 중금속 함유 인조잔디, 우레탄 운동장, 석면 천정,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등의 유해대포 심각한 수준에 이른 현실에 맞춰 구체적인 규제기준 마련의 필요성

에 따른 것이다. 총 다섯 명의 발제로 이루어지는 이번 토론회는 송원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다.

정준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부수분과장, 안영신 시민모임 줄거는 교육상상 공동대표, 박수미 발달장애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사무국장, 최명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공동대표,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실 안전관리사무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생안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네에 이어 유혜도 교육안전조례와 관련된 토론회를 주관하는 장인홍 의원은 "해마다 지적되는 학교교실 석면 문제와 더불어 올해는 우레탄 운동장과 같은 큰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학생안전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교육안전 기본조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계자 및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로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참여를 독려했다.



#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 송파구, 청소년 댄스연습장·공연장 'K-POP 또래울' 조성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최근 청소년 댄스연습장 및 소규모 공연장소를 활용 중인 'K-POP 또래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종합운동장역 2호선과 9호선 사이 연결통로인 아사아 지하보도에 'K-POP 또래울'을 만들었다.

지난 10월 3일 공사를 시작해 댄스 마루 2개와 벽면거울, 천장조명, 콘서트 등을 설치했으며 1월부터 청소년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아사아지하보도는 지난 1980년도에 설치됐지만 횡단보도가 놓인 이후

에는 이용하는 주민이 급격히 줄고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2014년 9월부터 지하보도 개선사업을 실시해 구경 홍보관, 갤러리, 휴식공간을 새롭게 조성했고 범죄예방을 위한 CCTV도 설치했다.

이전에 엘스아파트 출구 방향 유류공간에 'K-POP 또래울'을 만들었다.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습장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이용수첩에 간단한 사항을 적고 2시간이 내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회

말할 경우는 송파구 청소년(02-2147-3790)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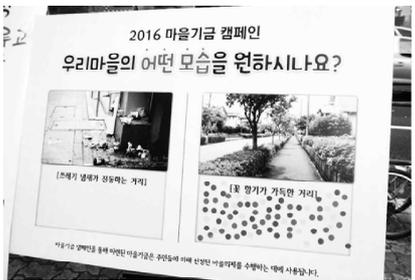
한편 송파구는 '이동·청소년이 행복할 송파'를 내걸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천정 최초로 '청소년과'를 신설했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유류공간을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또래울이 모이는 울타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28개소가 운영돼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개와 재능을 발전시키는 장소가 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유롭게 사할 이후 다양한 체험 행사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며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보다 문화공간 조성 등 청소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주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웃 함께 십시일반 모아 마을의제 똑딱!

## 성내2동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의제 해결위해 기금 조성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성내2동에서는 이웃공동체가 되살아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한다.

해결을 위해 '천원의 행복' 캠페인, 바자회 등을 열어 '마을기금'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웃이 한마음을 합력으로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공동체 회복과 화합을 도모한다.

한사회복지관과 함께 민관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매주 열린 회의를 거쳐 지난 10월에는 '틈새기금 중교교생 장학금 전달', '마을지도 안내포지판 설치', '마을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양심 꽃 화분 조성'을 의제로 선정했다.

강동역, 성내2동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마을기금 캠페인을 벌이고 성안마을을 축재한 동주민센터에 나눔부스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발효 막걸리와 청국장 등을 시식하는 등 마을기금 사업을 알리며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성내2동은 지난 6월 서울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희망지구 선정돼 주민소통공간인 '성공마을 주민사랑방'도 열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이 공간에서는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민 역량도 강화된다.

지역주민이 주축이 돼 이끌어가는 마을기금 조성과 이웃공동체 회복을 향한 노력이 성내2동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 서초구, 현대자동차와 함께 '벽화 그리기' 진행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5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신원동 서초지역자활센터 일대에 벽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벽화실시 장소는 행복주택 1층에 위치한 서초지역자활센터 외부 벽면과 대로 쪽 외벽, 포레스타 6단지 자활사업장 복도 등 세 곳이다.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물 벽면은 가로 15m, 세로 1m 의 약 15㎡ 크기에 나무 등 자연 친화적인 벽화를 그렸다.

대로 외벽에는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로 3.75m, 세로 2.5m의 9.4㎡ 벽화가, 포레스타 6단지에 위치한 자활사업장 복도에는 53.6㎡ 크기의 벽화가 그려졌다.

이번 벽화사업은 기존에 행하고 사각하던 자활사업단 건물 주변이 활기를 띠며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업무 능률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벽화 그리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힘을 보탰다.

직면 8기주, 총 16명이 참여한 서초구의 벽화 그리기 제안에 흔쾌히 동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 에티켓통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FEMINE HYGENE BINS

[특허 받은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이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으로 '특허받은' 은나노가 함유된 필터에 삽입된 나노수거함에 폐기물과 배설물은 수거 할 수 있는 '에티켓통'을 수거함입니다.

폐기물 용기를 일일이 들고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티켓통'은, 은나노가 함유된 필터에 삽입된 나노수거함에 폐기물과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에티켓통 특징**

- 에티켓통은 은나노가 함유된 케어스라 필터를 제작하여 향균과 탈취가 되는 제품입니다.
- 에티켓통은 내부 마감재가 불타서 화재의 위험을 배제하고, 불로 세척이 용이 합니다.
- 에티켓통은 내시외 고강도 플라스틱에 자외선 차단제와 탈취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탈취제와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에티켓통은 내외용형과 실내용형(벽면형)을, 공공시설용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에티켓통은 여성위생용품 수거함을 통해 남녀 간 소통의 기회를 더하고, 진정한 여성의 힘을 수거해줍니다.

**향균·탈취·절수**

[특허 제 10-1120069호] [디자인등록 제 30-0573670호]

"은나노가 함유된 향균과 탈취가 되는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에티켓통"

모델명	금액	628 학교급제 물품수거함번호
XE-ET100형 10입	77,000원	20150128262528
XE-ET100형 20입	99,000원	20150128262425
향균위생용품(10입) 1Box	49,500원	20150406340808
향균위생용품(20입) 1Box	143,000원	20150406340128

생리대 수거장치로 특허받은 제품 : 에티 Q (주)가아지연이 / www.에티켓통.com ☎ 02)866-8921, 055)242-8921